

건강 · 웰빙시장의 새로운 주도자

건강 및 웰빙식품의 최대 시장은 줄곧 선진국들이 포진한 북미, 유럽, 동아시아 지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5년은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uromonitor는 〈Gulfood Industry Outlook Report 2019〉 보고서를 통해 MENA(Middle East and Northern Africa)지역, 즉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향후 5년간 세계 건강 및 웰빙식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ENA 지역의 시장 성장률 예상수치는 9.9%로, 가장 근접한 경쟁지역이자 거대 시장이기도 한 남아프리카의 8.8%를 웃돌 것이며, 거래규모 또한 315억 달러(약 36조 5천억 원)로 남아프리카의 107억 달러(약 12조 4천억 원)보다 약 3배나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득 중산층의 소비 증가가 건강식품 성장의 주요 원인

대다수 전문가들은 MENA 지역의 건강·웰빙식품 시장의 급성장 요인으로 지역 고소득 중산층의 확대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꼽고 있다. MENA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등의 국가에는 해외파견 주재원 및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경제력을 충분히 갖춘 이 계층의 소비자들은 고가의 건강한 먹거리에 돈

을 아끼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의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프리미엄 라인에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MENA 지역 최대 유통매장인 Carrefour의 '건강한 주방(Healthy Kitchen)' 브랜드가 그 예다. '건강한 주방'은 동종의 다른 식품들에 비해 다소 비싼 프리미엄 유기농 제품만을 취급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충분한 비용을 치를 의사가 있는 중산층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전문가들이 꼽은 MENA 지역의 건강·웰빙식품 시장의 두번째 성장요인은 건강문제에 대한 경각심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국민건강 지표는 이 지역 사람들의 건강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바레인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국민 비만율이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 UAE의 경우 국민 3명당 1명이 과체중이고 연간 식이불량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구만 약 4,000명에 이른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식이불량으로 인한 사망률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나타내는 것이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사한 수치다. 최근 밝혀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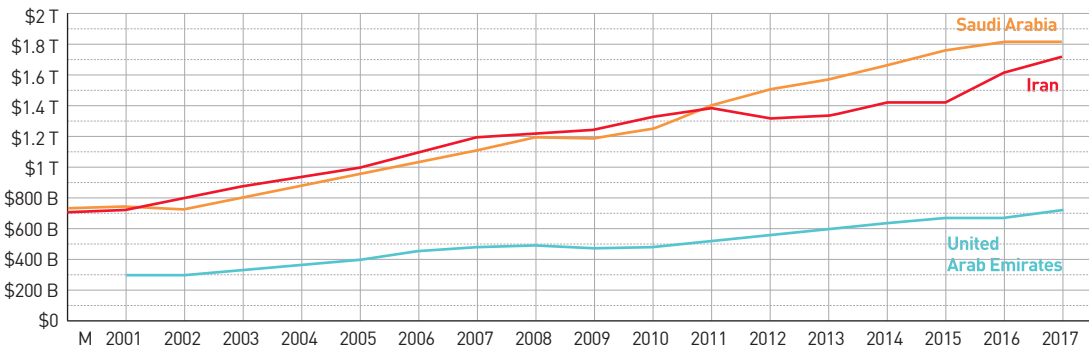
중동지역 인구의 높은 비만율은 설탕, 지방 등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음식의 과다섭취보다도 통곡물, 과일, 채소와 같이 건강한 식품섭취의 결핍이 더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다, 특히 학교의 급식과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UAE나 두바이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 학생들의 비만율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 학생들의 식생활을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계도할 수 있었다.

MENA 지역의 식품소비 핵심 키워드는 역시 '건강'

여러 자료와 통계에서 나타난 MENA 지역의 식품소비 트렌드는 확고하다. 다소 비싸더라도 건강과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는 식품이 그것이다. 현재 UAE에는 건강식을 컨셉으로 하는 레스토랑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정부 또한 국민들에게 건강식을 권장하고 유기농 과일, 채소 등을 국내에서 대량 재배할 수 있도록 첨단 농업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ENA 지역의 건강·웰빙식품 시장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들이다.

| MENA 주요국의 연도별 국가 수입 변화 |



중동지역 소비를 주도하는 사우디, 이란, UAE 등의 국가 수입 증가와 경제 호황은 건강, 웰빙식을 비롯한 식품 시장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 Carrefour 의 'Healthy Kitchen' 매장 |



프리미엄 오가닉 제품만을 취급하는 Healthy Kitchen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Key Point

한국 식품의 건강성 적극 홍보 필요

- 중동 지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최근과 같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가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던 만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때다. UAE 정부는 농업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 또한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 그러나 중동에서는 건조한 사막 환경으로 인해 유기농 및 천연식품자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만큼 식품 공급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늘어나는 건강·웰빙식품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여 관련 식품의 수입이 대량 증가하고 있는 이 때, 한국 농식품의 건강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동 시장에서 부진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그 외 건강관련 가공식품의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출처 : www.foodnavigator-asia.com, www.thenational.ae, www.khaleejtimes.com, www.google.com, www.tradearabia.com